

간호대학생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미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s of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Mi-Hyun Han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윤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 충남의 2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137명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집하였다.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과 Nordin이 개발한 민감성 측정 도구(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한성숙 등이 번역 후 수정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덕적 용기는 Sekerka 등이 개발한 도구를 문숙자와 김달숙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저자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7점 만점에 5.10점이었고 도덕적 용기는 7점 만점에 5.31점이었다.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375$, $p=.000$).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 중 환자 중심 간호($p=.016$), 전문직 책임($p=.035$), 의미($p=.048$), 선행($p=.000$)이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용기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6.9%이었다. 도덕적 용기는 간호대학생이 윤리적 문제가 포함된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 도덕적 용기는 도덕적 민감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면 도덕적 용기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moral sensitivity, moral courage, and their associ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7 fourth-yea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21 to November 2021 from two nursing schools using Lutzen and Nordin's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 translated and modified by Han and Sekerka's Professional Moral Courage (PMC), and translated and modified by Mun with permission of translator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ests were performed using SPSS. The overall scores for MSQ and PMC were 5.10 and 5.31, respectively. MSQ and PMC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 = 0.375$, $p = 0.000$). Among the five subconstructs of moral sensitivity examined, patient-oriented car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meaning, and benevolence were determined to influence moral courag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6.9%. Moral courage is one of the foundations for responsible behavior in complex situations with ethical conflicts. Our results indicate that moral sensitivity positively affects moral courage. We believe that the level of moral sensitivity can be increased by imparting ethical educa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s, Moral Sensitivity, Moral Courage, Ethics,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Han(Hyejeon College)

email: hmihyun@hj.ac.kr

Received August 30,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October 6,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 행위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를 어쩌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권리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의료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사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아직 환자 간호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간호대학생들 또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1].

이에 발맞추어 간호교육은 간호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성숙한 도덕적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여,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윤리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간호윤리 연구의 동향을 보면 도덕적 용기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등[2]이 2011년 ~ 2020년 사이에 발표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윤리 관련 국내 논문 246편을 모아서 논문들의 주제와 연구 방법을 분석했는데, 도덕적 용기와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논문이 6편(5.2%)이었다. 검색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로 발표된 연구논문은 조사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2017년 문과 김[3]이 Sekera 등[4]이 개발한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PMC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하였고, 이어서 문과 안[5]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용기 설명 모델 연구를 함으로써 도덕적 용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용기에 대한 도덕적 고뇌와 민감성의 관계[1],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6],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7,8] 등의 연구가 있다.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려면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윤리적 민감성은 학습하면 높아질 수 있으며[1,9,10] 그동안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 교육을 해왔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는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11,12]. 도덕적 민감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13,14], 의사결정 자신감[15], 임상수행능력[16]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연구자는 간호윤리교육을 받고 임상 실습을 마친 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를 측정하고,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 정도를 알아보고,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경기, 충남 소재 2개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 power program(ver3.1.)으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 크기 .15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집단 크기는 135명이 필요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생명윤리 또는 간호윤리 교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임상 실습을 모두 이수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과 Nordin이 개발한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한성숙 등이 번역한 한국판 도구(K-MSQ)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덕적 민감성 측정 도구는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총 27문항이다. 하위 영역은 환자 중심 간호(5), 전문직 책임 (7), 갈등(5), 의미(5), 선행(5)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함’ 7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었다.

2.3.2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는 L. E. Sekerka 등이 개발한 도구를 문숙자와 김달숙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저자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덕적 용기 측정 도구는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총 12개의 문항이다. 하위 영역은 도덕적 목표와 실천(6),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서 (2), 위험을 감수함(2),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하기(2)으로 구성되었다. ‘전적으로 동의함’ 7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용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과 김의 연구[3]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6이었다.

2.4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들이 설문지 응답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하였고,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82.5%, 남학생 17.5%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75.2%, 26세 이상이 24.8%였다. 종교를 가진 학생이 전체의 38.7%였으며, 미혼이 86.1%, 기혼이 10.9%였다.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타 전공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6%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이 29.9%였으며 근무 기간은 5년 이하가 50%, 6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0%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3.4%, 만족 56.9%, 보통 19.7%였다.

3.2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 정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10점이었고,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선행’이 5.53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 중심 간호’(5.17점), ‘갈등’(5.12점), ‘전문직 책임’(5.00점), ‘의미’(4.74점) 순이었다.

도덕적 용기는 7점 만점에 평균 5.31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도덕적 목표와 실천’(5.77점)이 가장 높았고,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서’(4.92점),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하기’(4.87점), ‘위험을 감수함’(4.74점) 순이었다(Table 1).

3.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 중 ‘의미’에서 대학 간 차이가 있었고($p < .005$)였고, 결혼 상태에 따라서 ‘선행’에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기혼이 미혼보다 ‘선행’ 영역에서 도덕적 민감성 점수가 높았다.

3.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

종교 유무가 도덕적 용기 하위요인 중 ‘위험 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위험 감수’ 점수가 높았다.

전공 만족도에 따라 도덕적 용기의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도덕적 용기 점수가 높았다. 도덕적 용기의 하위영역 중 ‘도덕적 목표와 실천’,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1. Score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with sub domains

(n=137)

Moral sensitivity		Moral courage	
Subconstructs	Mean ± SD	Subconstructs	Mean ± SD
Patient-oriented care	5.17 ± 0.77	Moral goal and art	5.77 ± 0.77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00 ± 0.69	Going beyond compliance	4.92 ± 0.94
Conflict	5.12 ± 0.67	Enduring threats	4.74 ± 1.12
Meaning	4.74 ± 0.76	Multiple values	4.87 ± 1.07
Benevolence	5.53 ± 0.72		
Total	5.10 ± 0.44	Total	5.31 ± 0.64

Table 2. Moral sensitivity with subconstru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N(%)	Total		Patient-oriented car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nflict		Meaning		Benevolence		
	M±SD	F/p (p)	M±SD	F/p (p)	M±SD	F/p (p)	M±SD	F/p (p)	M±SD	F/p (p)	M±SD	F/p (p)	
College													
H College	66(48.2)	5.17±.40	1.358	5.21±.72	2.592	5.07±.63	1.303	5.13±.70	.879	4.94±.70	.569	5.55±.76	1.916
Y College	71(51.8)	5.04±.48	(.087)	5.14±.82	(.582)	4.94±.74	(.274)	5.11±.65	(.904)	4.55±.76	(.002)	5.51±.68	(.758)
Sexuality													
Female	113(82.5)	5.11±.45	.124	5.20±.78	.031	5.00±.70	.001	5.12±.71	4.552	4.77±.75	.144	5.53±.71	.002
Male	24(17.5)	5.04±.39	(.421)	5.04±.74	(.359)	5.00±.66	(.827)	5.11±.46	(.930)	4.56±.76	(.204)	5.53±.77	(.985)
Age													
≥25	103(75.2)	5.09±.45	.359	5.17±.81	2.547	4.97±.69	.003	5.12±.69	.130	4.76±.76	.307	5.48±.68	.514
26≤	34(24.8)	5.15±.41	(.525)	5.20±.64	(.832)	5.08±.67	(.452)	5.12±.63	(.986)	4.66±.76	(.490)	5.70±.80	(.113)
Religion													
Yes	53(38.7)	5.13±.44	.219	5.31±.79	.050	5.03±.70	.641	5.14±.66	.088	4.68±.81	.252	5.51±.68	1.036
No	84(61.3)	5.09±.45	(.620)	5.09±.74	(.100)	4.98±.69	(.670)	5.10±.69	(.750)	4.78±.72	(.453)	5.54±.75	(.821)
Marital status													
Single	118(86.1)	5.11±.46	1.408	5.17±.78	.574	5.01±.72	1.101	5.16±.68	.127	4.76±.77	.529	5.48±.71	.471
Married	15(10.9)	5.12±.36	(.932)	5.28±.68	(.586)	4.94±.53	(.735)	4.87±.60	(.114)	4.61±.68	(.480)	5.95±.61	(.015)
Other majors													
Yes	31(22.6)	5.06±.37	2.526	5.15±.62	3.210	4.90±.54	2.817	5.08±.63	.399	4.59±.77	.182	5.65±.87	2.472
No	106(77.4)	5.11±.46	(.578)	5.18±.81	(.822)	5.02±.73	(.389)	5.13±.69	(.740)	4.78±.75	(.232)	5.50±.67	(.287)
Work experience													
Yes	41(29.9)	5.12±.38	1.593	5.24±.65	2.386	5.04±.68	.027	4.99±.56	.635	4.67±.67	1.928	5.72±.72	.026
No	96(70.1)	5.09±.47	(.719)	5.14±.82	(.496)	4.98±.69	(.682)	5.17±.71	(.144)	4.77±.79	(.491)	5.45±.71	(.050)
Employment period													
> 5 year	20(50.0)	5.16±.37	.001	5.30±.57	1.481	5.23±.73	.362	5.00±.56	.152	4.70±.71	.006	5.17±.40	.054
< 6 year	20(50.0)	5.12±.38	(.789)	5.23±.73	(.752)	4.89±.58	(.114)	5.00±.58	(1.000)	4.67±.70	(.890)	5.04±.48	(.095)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very high	32(23.4)	5.17±.46	1.186	5.11±.81	.403	5.10±.79	.492	5.19±.76	.522	4.76±.80	.244	5.75±.72	2.485
high	78(56.9)	5.10±.44	(.309)	5.22±.77	(.609)	4.98±.68	(.613)	5.12±.68	(.595)	4.75±.73	(.784)	5.50±.65	(.087)
moderate	27(19.7)	4.99±.42		5.08±.73		4.94±.60		5.01±.55		4.64±.80		5.35±.88	

Table 3. Moral courage with subconstru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N(%)	Total		Moral goals & act		Going beyond compliance		Enduring threats		Multiple values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College											
H College	66(48.2)	5.38±.56	2.208	5.87±.64	3.835	5.60±.83	.640	4.91±.94	3.956	4.80±1.10	.001
Y College	71(51.8)	5.24±.71	(.213)	5.14±.82	(.077)	5.50±1.04	(.561)	4.59±1.25	(.093)	4.92±1.01	(.490)
Sexuality											
Female	113(82.5)	5.28±.67	2.253	5.70±.77	.047	5.52±.96	.001	4.71±1.14	.702	4.92±1.05	.318
Male	24(17.5)	5.41±.51	(.370)	5.98±.77	(.104)	5.69±.84	(.432)	4.92±1.00	(.408)	4.58±1.03	(.157)
Age											
≥25	03(75.2)	5.31±.60	1.073	5.74±.74	.595	5.53±.84	1.626	4.71±1.05	3.373	4.94±1.00	.478
26≤	34(24.8)	5.29±.78	(.826)	5.78±.89	(.787)	5.60±1.22	(.713)	4.85±1.31	(.516)	4.62±1.18	(.122)
Religion											
Have	53(38.7)	5.38±.54	2.563	5.81±.68	2.287	5.68±.81	.165	5.04±1.06	.016	4.77±1.09	.475
No	84(61.3)	5.26±.70	(.274)	5.71±.83	(.457)	5.47±1.01	(.205)	4.56±1.12	(.014)	4.92±1.03	(.446)
Marital status											
Single	118(86.1)	5.30±.64	.133	5.72±.77	.374	5.54±.93	.004	4.76±1.06	6.384	4.84±1.04	1.569
Married	15(10.9)	5.43±.69	(.463)	5.89±.88	(.429)	5.83±1.01	(.258)	4.93±1.41	(.657)	4.83±1.26	(.976)
Other majors											
Yes	31(22.6)	5.25±.73	.141	5.74±.86	.193	5.51±1.17	.794	4.68±1.24	.930	4.69±1.14	.086
No	106(77.4)	5.32±.62	(.606)	5.75±.75	(.979)	5.56±.87	(.815)	4.76±1.08	(.705)	4.91±1.03	(.318)
Work experience											
Yes	41(29.9)	5.36±.60	.389	5.82±.73	.176	5.66±.94	.472	5.01±1.19	.525	4.72±1.13	.049
No	96(70.1)	5.29±.66	(.531)	5.71±.80	(.451)	5.50±.94	(.384)	4.63±1.07	(.067)	4.92±1.02	(.309)
Employment period											
> 5 year	20(50.0)	5.44±.48	3.591	5.82±.63	1.356	5.58±.91	.044	5.28±.95	7.265	4.93±.75	6.211
6 year <	20(50.0)	5.28±.71	(.415)	5.78±.83	(.864)	5.72±1.02	(.631)	4.75±1.38	(.170)	4.55±1.42	(.303)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very high ^a	32(23.4)	5.57±.61	4.475	6.12±.72	6.619	5.79±1.02	3.794	5.06±1.15	1.844	4.93±1.34	.126
high ^b	78(56.9)	5.27±.63	(.013)	5.71±.77	(.002)	5.59±.82	(.025)	4.62±1.13	(.162)	4.85±.97	(.881)
moderate ^c	27(19.7)	5.09±.65	a>c	5.42±.68	a>c	5.13±1.09	a>c	4.71±.99		4.79±.95	

* Scheffe test

3.3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상관관계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었다($p < .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Variable	Moral sensitivity	Moral courage
	$r(p)$	$r(p)$
Moral sensitivity	1	.375** (.000)
Moral courage	.375** (.000)	1

3.4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덕적 용기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덕적 민감성의 5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Tolerance)는 .64 ~ .99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1 ~ 1.57로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3으로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적합성도 충족되었다 ($F=10.98, p < .001$).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중심 간호'($\beta=.19, p=.016$), '전문적 책임'($\beta=.20, p=.035$), '의미'($\beta=.17, p=.048$), '선행'($\beta=0.35, p=.000$)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9%이었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oral courage

Factor	B	SE	β	t	p
Patient - oriented care	.160	.066	.192	2.433	<.05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82	.086	.195	2.125	<.05
Conflict	.036	.086	.037	.416	.678
Meaning	.140	.070	.165	1.997	<.05
Benevolence	.310	.066	.347	4.711	<.001
Adj. $R^2=26.9, F=10.997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

덕적 용기 정도를 파악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용기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5.1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5.00점[1]보다 높았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4.62점[6], 4.91점[16]보다 높게 나타났다.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서도 일률적으로 도덕적 민감성 점수가 높았다[11-13,15]. 4학년이 점수가 제일 높은 이유는 재학 중에 받은 윤리 교육과 임상 실습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도덕적 민감성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생명윤리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민감도가 더 높다는 김 등[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소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용기는 5.31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4.59점), [6](5.20점)보다 높았다. 이것을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는 '도덕적 목표와 실천'이 5.7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서'(4.92점),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하기'(4.87점), '위험을 감수함'(4.74점) 순이었다. 이러한 순서는 윤 등[1] 및 유[6]의 연구 결과와 같다.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 중심 간호'($\beta=.19, p=.016$), '전문적 책임'($\beta=.20, p=.035$), '의미'($\beta=.17, p=.048$), '선행'($\beta=0.35, p=.000$)이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9%이었다.

이것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한 김 등[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권[18]은 윤리적 문제의 해결 과정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윤리적 문제로 인식 → 문제 명료화 및 분석 → 다양한 요인의 고려 → 윤리적 결단 및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에서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지식/분석력, 다양한 지식과 경험, 도덕적 실천 의지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권에 따르면 도덕적 실천 의지는 집단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지만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다.

재학 중 윤리 교육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면, 간호 현장의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 윤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Y. Yun, S. K. Kim, H. E. Jang, S. W. Hwang, S. H. Kim,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Med Ethics*, Vol.21, No.4, pp.209-234, Dec. 2018.
- [2] G. Lee, S. H. Park, H. J. Lee, S. B. Park, S. H. Kim,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 Nursing Ethics Research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2011-2020), *Korean J Med Ethics*, Vol.24, No.1, pp.59-80, March 2021.
- [3] S. J. Moon, D. S. Kim, Convergence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for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Translated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3, pp.151-161,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3.151>
- [4] L. E. Sekerkra, R. P. Bagozzi, R. Charnigo, Facing Ethical Challenges in the Workplace: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rofessional Moral Courag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89, No.4, pp.565-579, 2009.
- [5] S. J. Moon, S. H. Ahn, An Explanatory Model of moral Courage as a Concept of nursing Practice Domain, *Korean J Med Ethics*, Vol.22, No.4, pp.341-358, Dec. 2019.
- [6] M. S. Yoo,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8, No.1, pp.26-35, April, 2021.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21.28.1.26>
- [7] S. J. Kim, *The Influence of Ethical Climate and Moral Sensitivity Perceived by Nurses of Moral Courag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Busan, Korea, pp.16-38, 2021.
- [8] J. W. Hyun, D. Y. Kim, J. S. Park, Y. S. Choi, Y. Y. Choi, S. H. Kim, Factors that Influence Clinical Nurses' Moral Courage, *Korean J Med Ethics*, Vol.24, No.1, pp.45-58, March 2021.
- [9] H. R. Kim, S. H. Ahn,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Korean J Med Ethics*, Vol.13, No.4, pp.321-336, Dec. 2010.
- [10] M. H. Park, D. Kjevik, J. Crandell, M. H. Oermann, The relationship of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reason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19, No.4, pp.568-580, 2012.
- [11]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53-606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53>
- [12] E. A. Kim, N. Y. Kim, Mediation Effe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Vol.26, No.5, pp.511-520, 202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5.511>
- [13] E. A. Kim, H. Y. Park, S. 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Med Ethics*, Vol.17, No.2, pp.144-158, August 2014.
- [14] M. 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1, No.3, pp.382-392, 2015.
- [15] M. H. Lim,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610-618, 2016.
- [16] Y. S. Song, J. 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KASNE*, Vol.26, No.2 pp.157-166, 2020.
- [17] S. S. Han, J. H. Kim, Y. S. Kim, S. H.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17, No.1, pp.99-105, 2010.
- [18] B. G. Kwo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Educ*, Vol.9, No.1, pp.60-72, June 2006.

한 미 현(Mi-Hyun Han)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7년 2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윤리